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 30:14) 

나의 2월 기도제목 (로 응답 표시하기)

	기 도 제 목	응답
1		
2		
3		

기억하고 싶은 성경구절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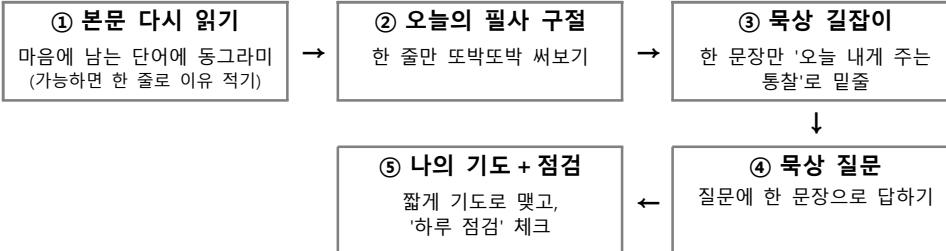
READING JESUS DAILY Q.T. 사용 가이드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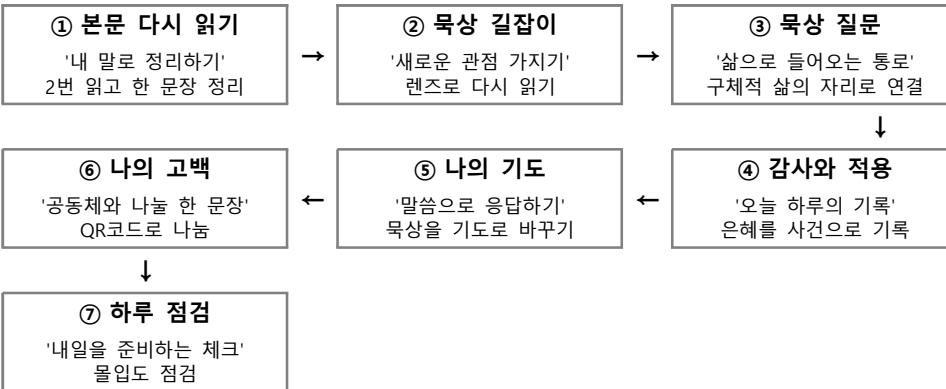
이 큐티책은 '많이 읽기'를 넘어,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는 하루를 돋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2월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책상 위 지식으로 끝나는 글이 아니라, 하루의 자리마다 우리를 찾아와 마음과 삶을 비추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과의 '맞닥뜨림(Encounter)'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초간단 7분 버전



깊어지는: 하루의 십일조 24분 버전



월간 도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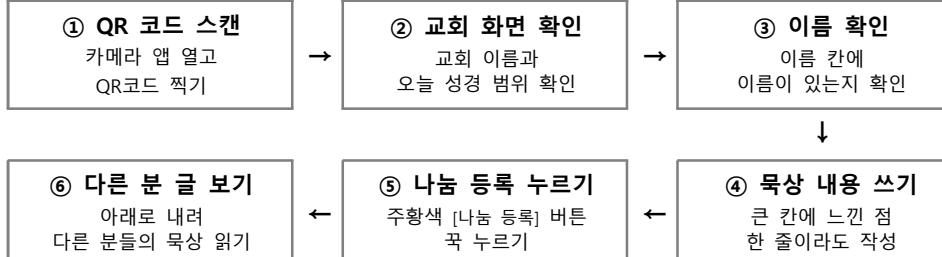
- ▶ 한 달 마무리 시 Q.T.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3D 프린팅 글자'를 순서대로 드립니다.
- ▶ 1월 'R' → 2월 'E' → 3월 'A' → ... → 12개월 동안 [READING JESUS] 완성!
- ◎ 목표: 완독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응답하는 예배의 지속

"7분으로 시작하고, 24분으로 깊어집니다."

READING JESUS WEB/APP 사용 가이드

"QR 코드를 찍고,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전체 순서 한눈에 보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 ❖ 예시1 (아주 짧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예시2 (조금 더):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 ❖ 예시3 (기도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 한 줄만 써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 Q. QR 코드가 안 찍혀요 ► 가까이 / 가만히 / 밝은 곳에서 다시 촬영해 보세요.
- Q. 글씨가 너무 작아요 ► 손가락 두 개로 벌리세요(확대).
- Q. 버튼이 안 눌려요 ► 버튼 가운데를 꾹~ 1초 정도 누르세요.
- Q. 실수로 잘못 썼어요 ► 키보드[←] 버튼으로 지우고 다시 쓰세요.
이미 등록되었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 Q. 나눔 등록 버튼이 안 보여요 ►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격려의 말씀

"한 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도 훌륭한 묵상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읽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2 2026
FEB

말씀 Encount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레 1-5	3 레 6-10	4 레 11-15	5 레 16-20	6 레 21-25	7 레 26-27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구역모임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8) 금요기도회 레 22:31	
8	9 민 1-6	10 민 7-12	11 민 13-18	12 민 19-24	13 민 25-30	14 민 31-36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큐티 라이브					라오스 단기선교 (~21) 금요기도회 민 30:2	
15	16 설날연휴 신 1-6	17 설날 신 7-12	18 설날 신 13-18	19 신 19-24	20 신 25-29	21 신 30-34
					라오스 단기선교 (2/13~2/21)	
22	23	24	25	26	27 금요기도회 신 29:29	28
					청년부 겨울수련회 (~3/1) 금요기도회 시 119:105	
					리딩지 저스 보충기간	

레위기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세워진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속죄와 정결의 길을 여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 속죄의 길을 여시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규례는 '거룩'이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레위기의 중심인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후반부의 규례(17-26장)는 각종 관계와 윤리, 사회와 경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펼쳐 두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는 언약을 기억하시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월 '말씀'의 여정은 이 거룩과 속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새로 빛어지는 '맞닥뜨림(Encounter)'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2

길을 여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레위기 1장 3-5절

- 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흄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 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4)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레위기의 첫 장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에덴의 불칼이 막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피로 여십니다.

흠 없는 제물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나의 죄가 드러나고 동시에 나 **대신**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피는 생명의 값이고, 그 값이 치러질 때 죄인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음을 얻습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흄 없는 참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길이 되셨습니다 (히 9:12).

3) 묵상 질문

레위기 1장의 '안수'처럼, 내 죄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 드려야 할 가지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길을 잊고 스스로 숨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칼이 막은 길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로 길을 여셔서 '나오라'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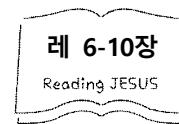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3

거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레위기 10장 1-3절

-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 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레 10: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목상 길잡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르는지의 문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나아오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대신 자기 방식(다른 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내가 다를 수 있는 분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폭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되, 거룩의 기준을 낮추어 가까워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함은 거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주어집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7)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참 예배자이십니다.

3) 목상 질문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가장 손쉽게 앞세우는 '나의 방식'은 무엇이며,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순종의 방법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도 제 방식과 습관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오니,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목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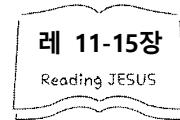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4

구별로 세우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레위기 11장 44-45절

44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먹는 것, 몸의 상태, 접촉, 생활의 경계... 얼핏 보면 신앙과 멀어 보이는 영역들에서도 우리를 말씀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거룩은 예배당 안의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힘으로 만들어 내는 성취가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11:45).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율법 아래에서 부정은 사람을 막아 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에게 오히려 정결이 흘러가게 하십니다(막 1:41-4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외적 경계를 넘어,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3)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구별'을 요구하실 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탐험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내 습관과 말, 그리고 매순간의 선택을 말씀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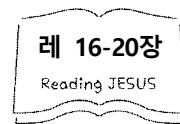


5

속죄로 쉬게 하시는 하나님

목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레위기 16장 29-31절

- 29**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 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 31**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레 16:30)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스스로를 정리하고, 마음을 수습하며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날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기에 충분히 괜찮아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자기학대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면은 먼저 우리를 낮추지만, 그 끝은 정죄가 아니라 정결입니다. 이날 백성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정결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히 9:12). 말씀과 맞닥뜨릴 때, 우리의 질문은 이것으로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가'

3)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주님,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불들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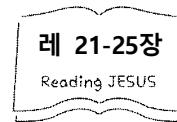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6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레위기 25장 8-12절

- 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 25:10)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희년은 '더 얻는 해'가 아니라 '돌아가는 해'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은 불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빛과 상실로 흐트러진 삶의 결이 말씀으로 다시 정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예배당 안에만 두지 않으시고, 시간과 경제와 각종 관계의 자리까지 끌어오십니다.

희년의 시작은 '속죄일'입니다. 참 회복은 단순한 제도나 착한 결심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놀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눅 4:18-19). 희년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나팔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풀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시는 참 희년이십니다.

3)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자유를 공포하라'하실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저는 자꾸 무언가를 쌓고, 든든히 불들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죄의 나팔을 불어 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자유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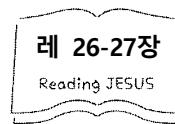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7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토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레위기 26장 40-42절

- 40**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 41**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 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 26:42)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레위기의 마지막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결말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도 돌아올 길을 남겨 두시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실패가 주님과의 언약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복하는 백성에게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대로 주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복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근거는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 예수닍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억'이 몸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3) 묵상 질문

-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 자복을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불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제 죄를 숨기지 않고 주 앞에 자복하게 하소서. 제 자복을 근거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와 주의 언약을 불들게 하시며,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걷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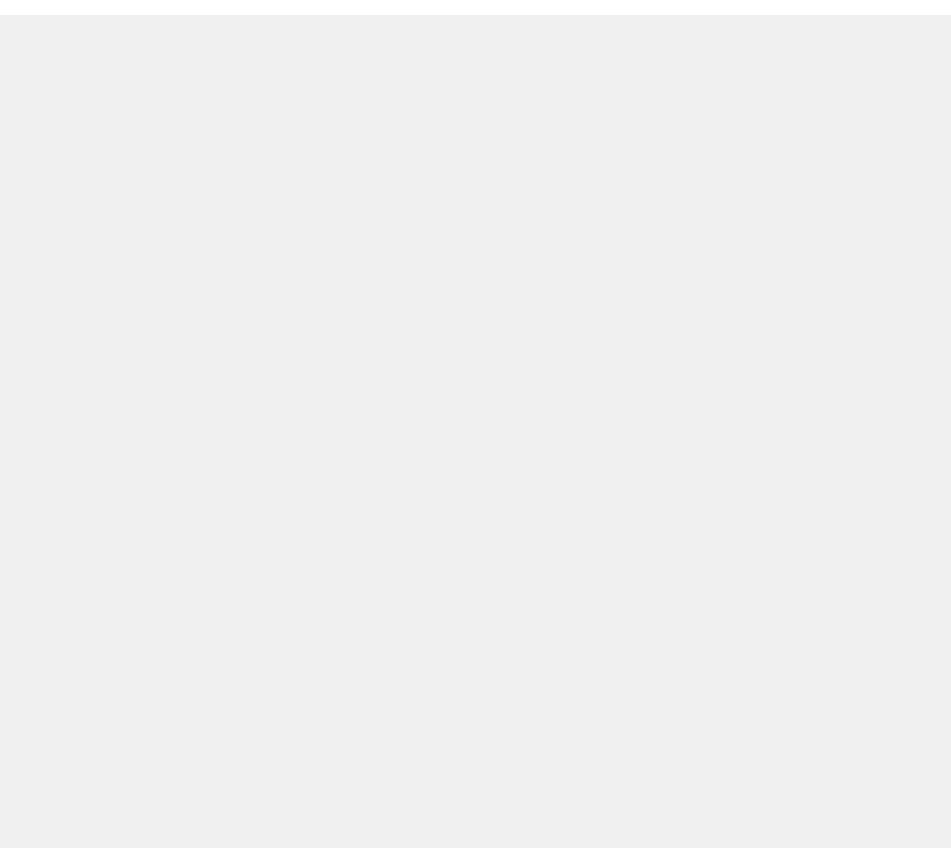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8

주일에 만나는 말씀 (SUNDAY WORD)

일요일

설교노트



1) 가정/구역 3분 나눔 (SUNDAY TALK)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이번 주 은혜에 응답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민수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와 진영의 질서로 공동체를 세우시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시험받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도 어떤 이는 언약을 놓아버리고, 어떤 이는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불드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가데스바네아의 불신앙과 방황은 약속의 땅이 시간이나 경로가 아닌 믿음의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는 흔들리는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불드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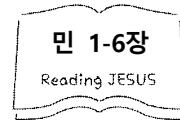
2월 '말씀'의 여정은 이 광야의 기록을 통해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며, 다시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맞닥뜨림 (Encounter)**'으로 이릅니다.

9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민수기 6장 24-27절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
들에게 복을 주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 6:25)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민수기의 광야는 길이 분명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변 환경을 먼저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의 초입에서, 백성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먼저 두십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또 향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백성에게 '향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돌봄이, 생존이 불확실한 광야에서도 우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해 옵니다(고후 4: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됩니다.

3) 묵상 질문

오늘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은 무엇이며, 그 자리에서 내가 불들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광야 같은 하루 앞에서 제 마음이 상황에 먼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복을 선포하시며 제게 얼굴을 향하신다 하셨으니, 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소서. 은혜와 평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불들고 오늘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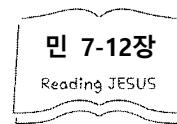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0

걸음을 빛으시는 하나님

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민수기 9장 17-19절, 23절

-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 19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민 9:1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은 큰 결단보다 멈춤과 이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대로 움직입니다. 불안이 재촉하면 달리고, 두려움이 오면 숨고, 내 계획이 서면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의 걸음을 다르게 빛으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머무르면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의 속도는 조정되고 방향은 다시 정해집니다.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께 허락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다시 빛어지는 것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길이시며(요 14:6),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참 순종의 아들이십니다(요 6:3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3) 묵상 질문

오늘 내가 조급함으로 밀어붙이려는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주님, 제 속도와 계획이 주님의 인도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 걸음을 말씀 앞에 세워 주시고, 멈출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여, 주께서 정하신 걸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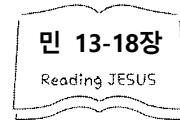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1

두려움을 폭로하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민수기 14장 6-9절

- 6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 14: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정탐의 결과는 같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열 명은 현실을 보고 '우리는 못 간다'고 말했고, 두 명은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은 이유 없는 낙관이 아니라 말씀을 불드는 것입니다. 눈앞의 거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움의 언어로 상황을 표현합니다. "안 될 거야, 늦었어, 우리는 악해." 그러나 말씀과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석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강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현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로 말씀을 불드셨습니다(마 4:4-10).

3) 묵상 질문

- 오늘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다시 불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제 눈에는 문제의 크기만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 시선을 고쳐 주옵소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불들며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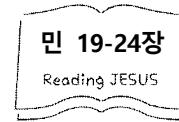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2

살리시는 하나님

목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민수기 21장 5-8절

-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광야에서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길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 작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뱀 때문에 쓰러지기 전에, 이미 원망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해결책이 아니라, 보라는 말씀입니다.

장대에 든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살 길을 만들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 앞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 해석을 불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들 것인가.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시며,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요 3:14-15).

3) 묵상 질문

- 오늘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망의 말'은 무엇인가요?
- 그 순간, 내가 다시 들려야 할 시선(바라봄)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살리시는 하나님, 제 마음이 지치면 원망이 먼저 나오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라' 하시는 말씀 앞에 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불들게 하옵소서.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는 은혜로 오늘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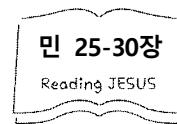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3

이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민수기 27장 1-5절

- 1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 2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 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 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 5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민 27:4)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뒤에서 수군대지 않고 회막 문 앞에 섭니다. 이들은 현실(광야의 죽음)을 말하면서도, 약속(기업)을 불듭니다. 기업은 땅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약속으로 둑어 주신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전에, 언약을 붙든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품은 채 뒤로 물러납니다. '원래 그런 거야'하며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로브핫의 딸들은 부서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질서와 언약(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버려지거나 삭제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이름이며 하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롬 8:17).

3) 묵상 질문

내 마음에 '삭제된 이름'처럼 남아 있는 상처나 억울함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남은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이름을 지키시고 기업을 주시는 은혜를 불들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팀의 출발을 지키시고 안전히 인도하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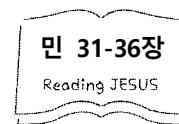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4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토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민수기 35장 11-15절

-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 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민 35:15)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민수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죄와 분노가 더 벤지지 않도록 길을 세우십니다. 도피성은 죄를 감춰주는 장치가 아니라, 억울한 피가 더 억울한 피를 낳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공의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상처가 쌓일수록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 치라'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관계와 혼들린 마음을 방지하지 않으시고, 피난처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내가 숨는 방식은 정죄를 키우지만, 피난처로 도망하여 그리스도께 피하는 믿음은 소망을 불들게 합니다(히 6:18).

3) 묵상 질문

-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나요?
- 그 지점을 '그리스도께 피하기'로 바꾸기 위해 오늘 내가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숨으려는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주께서 마련하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 안에서 다시 서는 저와 라오스 선교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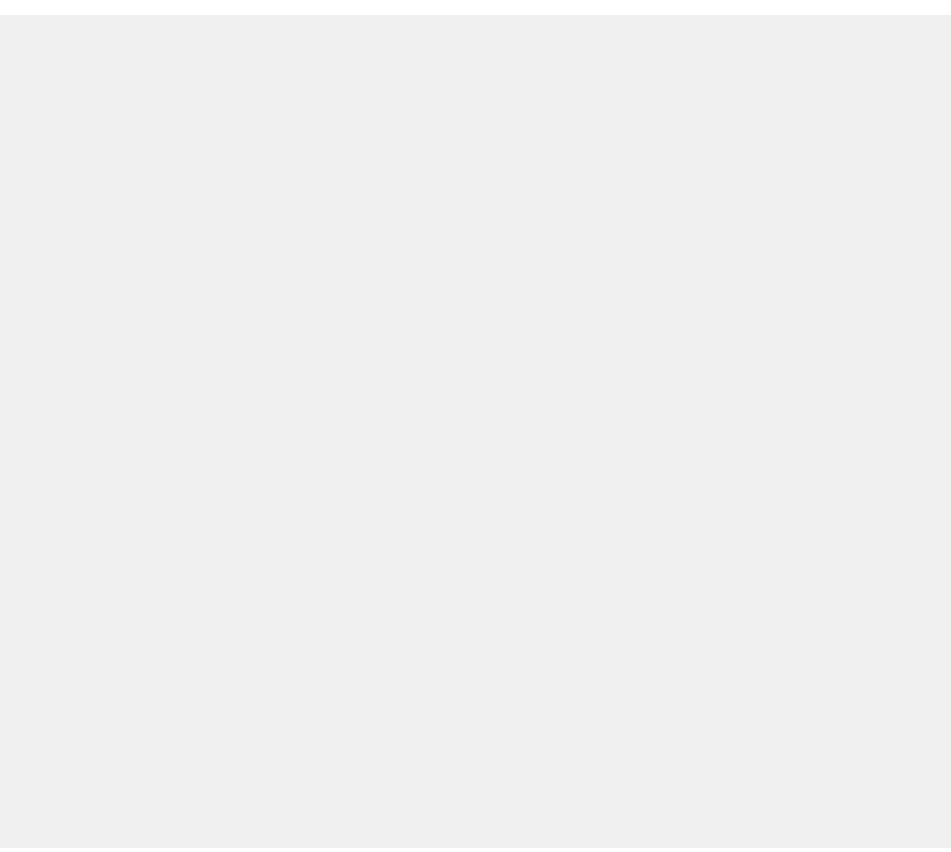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5

주일에 만나는 말씀 (SUNDAY WORD)

일요일

설교노트



1) 가정/구역 3분 나눔 (SUNDAY TALK)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이번 주 은혜에 응답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신명기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려주는 책입니다.

신명기의 중심은 ‘**들으라(쉐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며, 은혜로 살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여정,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삶의 기준이 되도록 새겨야 합니다. 눈 앞에 놓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상과 편안함이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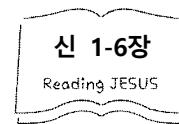
2월 ‘말씀’의 여정은, 멀리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 피할 수 없도록 가까이 다가와 마음과 걸음을 새롭게 하는 ‘**맞닥뜨림 (Encounter)**’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6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신명기 6장 4-9절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신명기는 광야 끝자락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불러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길보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앓고, 걷고, 눕고, 일어나는 자리마다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루 동안 늘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결국 질문을 받습니다. "너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다시 선언하시고(막 12:29-30), 우리가 못한 쉐마의 사랑과 순종을 끝까지 이루신 언약의 대표, 곧 '참 이스라엘' 이십니다.

3) 묵상 질문

오늘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다른 사랑'은 무엇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새기겠습니까?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유일하신 하나님, 제 마음이 쉽게 나누어지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들으라'하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팀의 만남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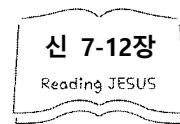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7

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하나님

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신명기 10장 12-13절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1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목상 길잡이

신명기는 광야 끝에서 다음 세대에게 묻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한 문장으로 삶의 중심을 겨누십니다.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씀과 맞닥뜨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 앞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요구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순종을 대신 이루시고, 그분 안에서 그 요구가 정죄가 아니라 행복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3) 목상 질문

오늘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부담으로 느끼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자주 부담으로만 여기며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경외와 사랑과 섬김의 길이 제 행복을 위한 길임을 믿게 하시고, 라오스 선교팀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목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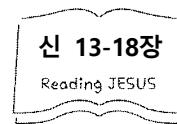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8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신명기 18장 15-18절

-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 18:15)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고, 직접 대면하기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과 맞닥뜨리는 일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보 하나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의 본질은 듣는 데서 시작되고,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모든 불순종의 출발점이 됩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고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행 3:22).

3) 묵상 질문

지금까지 내가 듣기 싫어서 피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내 주장과 고집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팀에게 통역과 소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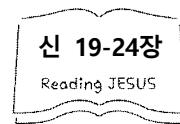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9

저주를 대신 지신 하나님

목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신명기 21장 22-23절

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 21:2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형별의 기록이 아니라,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말씀과 맞닥뜨리면 우리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죄의 결과와 수치, 저주에 관한 말은 듣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주는 죄인을 정죄로 고정하려는 말이 아니라, 죄의 값을 보여 주어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 예수닍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린 자'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갈 3:13). 우리가 숨고 싶은 저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끝까지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3) 묵상 질문

- 오늘 내가 숨기고 싶은 죄와 수치는 무엇인가요?
-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갈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죄와 수치를 마주하기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라오스 단기선교 가운데도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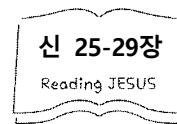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0

언약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신명기 29장 9-13절

- 9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 10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 11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 12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 13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 29:1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을 앞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시 언약의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놀라운 것은 대표자 몇 사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나그네까지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맞닥뜨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으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는 길을 자기 피로 열어 주셨습니다(눅 22:20).

3) 묵상 질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오늘 사랑으로 응답할 한 가지 순종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주님, 제 마음이 자꾸 말씀 앞에서 비켜 서려 합니다. 오늘 다시 저를 부르셔서 여호와 앞에 세우시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제 흔들림을 붙드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팀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남은 일정도 지켜 주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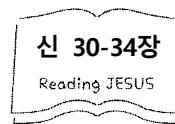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1

가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신명기 30장 11-14절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신 30:14)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우리는 자주 말씀을 멀리 두고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더 나면, 마음이 좀 정리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미룹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광야의 끝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말은, 말씀이 삶의 언어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서 '가까움'이 되었고(요 1:14), 그분이 우리의 입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3) 묵상 질문

내가 말씀을 '멀리 두려 한'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4) 감사와 적용

5) 나의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이 자주 말씀을 먼 곳에 두고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제 입과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라오스 선교팀의 귀국 여정을 지키시고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아멘.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2

주일에 만나는 말씀 (SUNDAY WORD)

일요일

설교노트

1) 가정/구역 3분 나눔 (SUNDAY TALK)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이번 주 은혜에 응답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모세오경을 따라 읽는 시편

▣ 2/23(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 105:1-5)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신실함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05편은 그 언약의 역사를 찬양으로 다시 불러내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약속 위에 세우도록 합니다.

- 한 문장 묵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교회를 복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창 12:2)
- 오늘 내 응답 한 문장 :

▣ 2/24(화)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 114:1-4)

출애굽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시편 114편은 바다와 산도 떨게 하신 주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한 문장 묵상
'구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
-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섬김 위에 공급과 치유를 주소서 (출 23:25)
- 오늘 내 응답 한 문장 :

▣ 2/25(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시 24:3-6)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가르칩니다. 시편 24편은 그 거룩 앞에 서는 자의 손과 마음을 묻고, 주께서 주시는 의로 나아가게 합니다.

- 한 문장 묵상
'거룩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 주소서 (레 26:11-12)
- 오늘 내 응답 한 문장 :

2/26(목) 광야에서의 시간을 세라 (시 90:1-2, 12)

민수기의 광야는 길도, 시간도 불확실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시편'90편은 광야에서 배우는 지혜('우리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로 우리를 이끕니다.

- 한 문장 묵상
'광야에서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마음을 빛는 시간이다.'

-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에게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덮어 주소서 (민 6:24-26)

- 오늘 내 응답 한 문장 :

2/27(금) 말씀을 마음에 두라 (시 119:9-11)

신명기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고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9편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그 길을 지켜 행합니다.

- 한 문장 묵상
'말씀은 기억하는 정보가 아니라 거룩을 이루는 생명의 길이다.'

-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신 28:2)

- 오늘 내 응답 한 문장 :

2/28(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시 103:1-5)

오경의 여정 끝에 남는 것은 '내가 베틴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불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려세웁니다.

- 한 문장 묵상
'복은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흘러온다.'

-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 되시고 영광의 승리로 이끄소서 (신 33:29)

- 오늘 내 응답 한 문장 :

이 주간은 '못한 분량을 채우는 기간'이 아니라, 한 달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불들어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응답하는 주간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이유는 그 땅이 비옥하거나 정착에 유리해서가 아닙니다. 헤브론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읍으로,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잡았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으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요청은 단순히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은 '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싸우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일 수도 있으며, 외면하고 꼭꼭 숨겨두었던 삶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갈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그 산지를, 그 숙제를 감당할 만큼 성장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그 숙제를 해볼게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불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READING JESUS DAILY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갑니다.

말씀으로 365-

읽는 교회를 넘어, 말씀과 함께 사는 교회로.

※ 월말에 Q.T.의 흔적(책/어플)을 가지고 부스에 오시면, 월별로 1글자씩 드립니다.
12달을 다 모으면 READING JESUS가 됩니다. (1월-R, 2월-E, 3월-A, ~12월-S)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월, 감옥에서 길이 태어나다

–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우리에게,
1678년 2월이 말해주는 것

1678년 2월경. 서지 기록에 따르면 존 번연의 『천로역정』 1부가 초판으로 출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편안한 책상 위에서만 탄생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존 번연은 설교를 멈추라는 명령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오랜 시간 감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밖에는 가족이 있었고 쟁겨야 할 생계가 있었으며, 게다가 시각장애가 있는 딸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견디기엔 너무 길고, 한 가정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존 번연은 그 고난의 방에서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로역정』은 '고난 속에서 태어난 길'이 되었고,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2월의 본문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세 책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피할 수 없이 나를 드러내고 방향을 바꾸는 대면(Encounter)임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묻고, 민수기는 그 길을 들었는데도 왜 쉽게 되돌아가는지 드러내며, 신명기는 '다시 들으라(쉐마), 다시 새겨라, 다시 사랑하라'며 언약 백성을 말씀 앞에 세웁니다.

1. 레위기처럼, '짐'을 내려놓는 길은 대속으로 열린다

『천로역정』의 첫 장면에서 순례자는 멀망의 도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납니다. 그 짐은 혼자만 느끼는 죄의 무게처럼 등을 짓누릅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죄인은 자기 감정이나 결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곧 피 흘림과 대속의 길이 필요합니다.

맞닥뜨림(Encounter)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은 죄의 현실을 숨기지 못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순례의 시작은 '더 가벼운 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는 은혜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2. 민수기처럼 광야는 길을 막는 곳이 아니라 감춰진 진심이 드러나는 곳이다

순례자는 길을 떠나자마자 절망의 늪을 만납니다. 함께 오던 변덕쟁이는 '이 길이 좋다 더니 왜 이 모양이냐'며 돌아가 버립니다.

민수기의 광야가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환경이 거칠어지면 사람의 속이 드러납니다.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커지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걷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맞닥뜨림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로역정의 '도움(Help)'처럼, 불드시는 손을 더 분명히 보게 합니다.

3. 신명기처럼,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온다

순례자는 좁은 문 앞에 섭니다. 문은 좁고, 길은 걷기 힘들며, 방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신명기는 이 확신을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 너머나 바다 밖에 있지 않고,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다'(신 30:14)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은 '알아라'가 아니라 '들으라(쉐마)'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신 6:5)'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상과 불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폭로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분명히 내어주십니다(신 30:15-20).

말씀이 가까이 왔기에, 이제 우리는 선택합니다. 2월의 맞닥뜨림(Encounter)은 가까워진 말씀 앞에서 더는 도망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례자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2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우리도 말씀 앞에 서서 숨지 않고 드러나며, 다시 길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Encounter)의 끝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굴러 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 발로 다시 삶의 길을 걷게 합니다.

◎ 2월 교회사 한 장면

▶ 1546. 2. 18 마르틴 루터 소천

'오직 말씀의 불꽃을 남긴 종교개혁자, 루터가 세상을 떠나다.'

▶ 1897. 2. 2 아펜젤러, 『조선그리스도인회보』 창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문)

'복음이 강단을 넘어 글이 되어 조선의 거리로 흘러가다.'

▶ 1954년 2월 박형룡, 『신학지남』 속간 (복간)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 장로교 신학의 나침반이 다시 움직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 멈추고, 다시 걷는 은혜

▶ 도입

▷ 1월의 리딩지저스 데일리 Q.T.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 1월의 흔적 나눔

- 1월 말씀 앞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단어 하나님
- 지체들의 나눔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님
- 그 단어/문장이 내 삶의 어디를 건드렸나요?
(예: 마음이 위로됨/찔림/감사/회개/다시 힘이 남)

▶ 구역 말씀 |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광” (출 40:34-38)

-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 관찰 질문

-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구름/영광/성막/나아감/머물)
- 하나님의 하신 일 vs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은?
 _ 하나님의 하시는 일 (34, 38절) :
 _ 사람이 할 수 없던 일 (35절) :

▶ 구역나눔 길잡이 : 거룩 앞에 멈춰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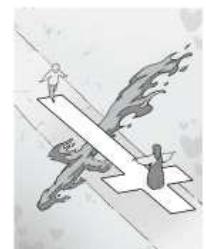
에덴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며 길은 불칼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건져 내시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성막 규례를 주셔서 ‘다시 함께 교제할’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 사랑의 열심을 확증하십니다.

하지만 감격의 현장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거룩은 죄인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길(피)을 통해 열립니다.

▶ 예수님과 연결 : 길이 되신 임마누엘

출애굽기의 임재는 성막에 머물렀지만, 그 완성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과 피로 단번에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 임재를 누립니다.



불 깊은 두려움
길 찾기

▶ 구역 나눔 | 내 삶의 멈춤, 내 삶의 동행

- ▷ 1월 한 달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거하셨다/동행하셨다’고 느꼈던 장면 하나는? (예: 말씀을 읽을 때/잠들기 전/아픈 날/가족/일터)
- ▷ 반대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서 나를 문 앞에 멈춰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죄책감/두려움/상처/내 방식/미루는 습관/‘내가 준비되면...’ 같은 마음)
- ▷ 그 멈춘 자리에서 내가 불을 ‘믿음’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만)
(예: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 구역 기도 | 서로의 걸음을 위한 합심기도

- ▷ 기도제목 나눔
- ▷ 짹 / 삼각 기도

▶ 끝맺음

“우리는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한 문장을 남겼고, 누군가는 침묵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였습니다.

이 공간은 큐티웹에 남겨진 묵상 중 일부를 옮긴 기록입니다.

Q.T.는 혼자 쓰는 기록이 아니라 **동행의 기록입니다**.

묵상의 자리 ‘머무름의 기록들’

- ⦿ 주님 말씀 앞에 온가족이 모이고 머문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안심됩니다. - 송영숙 -
- ⦿ 주님이 오늘 저를 이끄시는 그 보폭만큼 묵묵히 걸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재훈 -
- ⦿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 SU P -
- ⦿ 주님과 가깝던 그 시절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 익명 -
- ⦿ 포기하고 버려두고 외면하던 자리를 벗어나 제단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 Paul Lee -
- ⦿ 풍부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람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 박정현 -
- ⦿ 다른 선택지 중에 당신이 제일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정말로 주님 뿐입니다. - 형찬주 -

우리는 이미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Q.T.의 완성은 잘 해낸 하루가 아니라,
다시 펼친 그날입니다.”**

큐티의 자리 ‘하루로 이어진 마음들’

- ⦿ 내 인생의 한 자리를 바꿔놓으신 하나님 - 박영란 -
- ⦿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함을 알고 납작 엎드리는 삶 살아야겠다. - 익명 -
- ⦿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배이다. - 레일라 -
- ⦿ 하나님! 자꾸 넘어지는 저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아 -
- ⦿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 허허실실 -
- ⦿ 첫 만남의 설렘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가 - 버거는버거킹 -
- ⦿ 비록 죄악으로 넘어지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이고십니다. - 익명 -
- ⦿ 예배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 권순천 -
- ⦿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순종 모먼트 - UU HJ -
- ⦿ 거래하듯 신앙생활 하지말자 - 김짱 -

2 February

MEMO

MEMO

“큐티책의 첫인상이 되어주세요.”

3월호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만납니다.

각 성경의 핵심 주제와 흐름이 담긴 한 컷 그림(손그림 환영!)으로 개관 페이지의 첫인상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호 큐티책 개관 페이지에 실립니다.

- 참여 대상 : 주일학교 **학생**부터 **장년**까지 누구나
- 참여 방법 : 공모전 신청 부스에서 ‘**지정 규격 용지**’를 수령해 작품을 그린 뒤, **제출함**에 넣어 주세요.
- 부스 위치 : **1층 포레이든카페 / 지하 1층 로비**
- 온라인(선택) : 디지털 작업자는 **원본 파일(PNG)**을 **이메일로 제출**
(clarehyeong@gmail.com)

규격 : 가로 120mm × 세로 60mm

※ 사진 촬영본은 품질 문제로 받지 않습니다.
- 흑백 인쇄 안내 : 큐티책은 **흑백**으로 인쇄됩니다.
검정펜, 연필 등 선이 **또렷한 도구**를 추천합니다.
옅은 색(연한 파스텔 등)은 인쇄 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감 : **2월 15일**(주일)까지
- 문의 : **Dream Factory 형찬주** 자매 (010-5197-2595)
'지정 규격 용지'는 부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문으로 사용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안성서공회에 있습니다.